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안적 계획이론의 모색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and
an Inquiry of Alternative Planning Theory

김홍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 주요단어 : 근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던 계획

목 차

- I.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 II.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 III. 포스트모더니즘과 계획이론
 - 1. 근대계획에 대한 포스트모던 조류 이전의 문제의식
 - 2. 현대 계획이론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 IV. 대안적 계획이론의 모색
- V. 결론

I.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18세기에 태동한 근대주의(Modernism)는 인간의 지성과 과학적 이성에 대한 낙관적 신뢰를 통해 더 나은 세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의 표명이다(Taylor. 1998; Allmendinger. 2002a). 실제로 계몽주의와 결합된 근대주의는 인류를 빈곤과 무지, 억압과 맹신이라는 전근대적(Premodern) 억압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킨 것으로 평가된다(Harvey. 1989). 그러나 사회발전에 대한 열망인 근대주의는 파시즘과 공산주의라는 일련의 극단적 변이로 인해 강력한 회의에 부딪히게 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집단적 광기는 아우슈비츠의 가스실, 정치범 수용소, 문화혁명, 킬링필드라는 구체적 현실을 통해 그 이념적 그리고 방법론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게 된다(Bauman. 1989).

경제적으로는 1973년 오일쇼크로 서구 자본주의의 전성시대에 균열이 나타남으로써 그때까지 별다른 의문 없이 당연시되어 왔던 기성체제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니엘 벨(Daniel Bell)은 후기산업사회의 도래를 언급하면서 19세기 이후 근대사회를 떠받치던 산업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형을 지적한다. 1980년대 이후 포디즘적(Fordist) 생산양식이 해체되고 정보통신기술에 근거한 새로운 생산 및 문화양식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산업혁명의 소산인 근대주의는 이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국면에 처해 있다.

하지만 근대적 이성이 해결하고자 했던 빈곤과 억압이라는 인류의 과제는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

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헤게모니 속에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¹⁾ 제3세계의 정치적, 종교적 억압과 갈등 역시 별다른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버마스(Habermas)는 해방의 프로젝트로서 근대성(Modernity)과 계몽주의의 역할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Duncan. 1996).

Friedmann(1989)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은 흔히 계몽정신의 진정한 후계자로 일컬어진다. 합리적 이성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가의 지성과 양심을 통해 사회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계획이야말로 근대정신의 체현이라 할 만하다(Beauregard. 1989). 근대주의적 사고로 무장한 도시계획가들은 자본주의 도시에 합리성과 민주주의를 도입하고자 분투해 왔다. 그들은 공공의 의사결정이 정치적이기보다는 기술적인 준거에 의해 결정되기를 희망했으며, 집단적 목표를 중심으로 조정되는 기능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계획가들은 어떠한 특수이익으로부터도 비판적 거리(Critical Distance)를 유지하는 중립적 존재로 이해되어 왔다(Beauregard. 1989).

계획적 사고의 준거가 되는 합리적·종합적 접근(Rational Comprehensive Model)은 근대정신의 인식과 방법을 매우 잘 보여준다(Allmendinger. 2002a). 또한 더 나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고자 하는 계획의 사회공학적 속성은 전형적인 근대주의의 인식으로 이해된다(Beauregard. 1996). 계획은 파시즘이나 공산주

1) 교육부가 2005년도에 중식을 지원한 초·중·고등학교의 결식아동 수는 46만 8,2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세계일보. 2006. 1. 11).

의와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에 대한 강렬한 추종자다(포퍼, 1998). 그것은 이들 모두가 근대정신에 인식론적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근대적 도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도시를 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Taylor, 1998). 포퍼(1998)가 언급한 것처럼 계획의 이러한 통제적, 강압적 속성은 근대주의의 억압적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평가이든, 긍정적 평가이든 많은 연구자들이 계획을 근대정신의 소산으로 평가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Beauregard, 1989; Taylor, 1998). 결국 근대정신의 위기는 계획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러 학자들이 '계획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새로운 모습의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계획이론 차원에서 제안되는 계획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표출된다. 첫 번째는 기존의 계획이 기반한 근대성과 합리성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여기에 다양성과 다원주의의 가치를 접목시킨 접근으로서, 그 예로는 의사소통적 계획(Communicative Planning),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실용주의적 계획(Pragmatist Planning)을 들 수 있다(Allmendinger, 2002a). 이들 계획의 철학적 기초는 대체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에서 찾아진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기존의 도구적 합리성 개념이 갖고 있던 몰가치적(Value-free)이고 기계론적이며 일원론적(Unitary)이고 환원론적(Reductionist)인, 그리고 동시에 억압적(Oppressive)인 성격을 민주적이고 다원론적인 모습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된

다. 일찍이 Friedmann(1973)이 주창한 교호계획(Transactive Planning)의 상호 학습적 측면과 Davidoff(1965)의 옹호계획(Advocacy Planning)이 견지하고 있는 다원주의는 이들 계획에 인식론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 접근이 근대정신의 부정적인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계몽주의 프로젝트로서의 계획의 본령을 복원해내고자 하는 시도라면, 두 번째 시도는 계획이 지닌 근대성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면서 계획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도의 핵심에 이 연구가 논의하고자 하는 포스트모던 접근이 있다. 포스트모던 접근은 도구적 합리성에 기반한 계획이 차이와 다양성을 무시함으로써 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성권력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Beauregard, 1989; Allmendinger, 2002b).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근대주의의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한 공의 개념은 백인, 남성, 중산층과 같은 기득권 계층 옹호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된다(Fainstein, 2005).

권력의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일견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주로 구조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포스트모더니즘은 미시적 측면(성, 인종, 지역 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로제나우, 1998). 이러한 맥락에서 Eagleton(1996) 같은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군축보다 동성애자의 권리를 그리고 기아보다 성적인 취향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포스트모던 접근 외에 계획의 존재론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는 또 다른 접근은 신자유주의적 인

식이다(Allmendinger, 2002b; 김홍순, 2005). 1980년대 이후 강력한 헤게모니를 획득한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계획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시장의 권능을 일방적으로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과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접근과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시장에 의한 도시 관리를 지지한다는 지점에서 합류된다(Harvey, 1989, 1993; Fainstein, 2000).

본 연구는 이러한 21세기 계획담론의 지형 중에서 포스트모던 한 접근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제 원칙이 근대주의의 소산인 계획 실행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이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의 초점이다. 또한 계획이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어떠한 측면들이 계획 실행에 도입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Fainstein(2000) 등이 최근 계획사고의 진전을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계획론적 고찰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양식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서구 계획학계의 활발한 연구추세와 달리 포스트모더니즘과 계획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장욱(1996)과 안태환(2004)의 연구가 있지만 이들의 연구는 계획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후기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²⁾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보다는 계획 개념에 집중함으로써 계획실행에 유용한 언술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을 하나의 개념적 틀 안에 가두는 것을 극도로 혐오한다³⁾(Duncan, 1996; Oranje, 2002). 그러한 환원론적 개념화 작업은 근대주의의 소산으로서 다양성과 다원성, 비결정성(Indeterminacy), 비교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언어와 의미의 불안정성을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는 부적합한 접근일 수 있다. 따라서 개념의 규정과 비교를 시도하는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연구라기보다 포스트모더니즘을 밖에서 관찰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II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의 개념을 원론적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I장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계획이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IV장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계획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채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 후기구조주의는 주로 철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포스트모던한 현상으로 규정된다(정환용, 2001).

3) 현실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은 매우 혼란스럽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기성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사회문화적 조류를 통칭해서 포스트모던 한 조류로 부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조주의, 낭만주의, 현상학, 실존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서구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의 혼합물로 이들 자체가 대립적이고 상이한 경향이라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자기 모순적 혼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정환용, 2001). 결국 Foster(1983)가 규정하는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문화역사적 이미지의 절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부분적 특징만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개념화 자체가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II.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

Jameson(1988)은 현대인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에 의해 침윤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같은 맥락에서 Dear(1988)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의 세례를 받은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는 무엇인가? Duncan(1996)의 분류에 따라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를 구분하면, 전자가 근대주의에 대한 급진적 도전으로서의 지적운동이라면 후자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향과 문화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대에 있어 양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적 영향 아래 문화적, 학문적 헤게모니를 신장시키고 있는데 포스트모더니티가 하나의 스타일에 관한 문제제기라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사고 방식과 대안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Taylor. 1998). 하지만 두 개념은 엄격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이성의 특권과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는 근대론적 믿음에 대한 도전적 반대다(Oranje. 2002). 포스트모더니즘은 또한 근대주의가 추구하는 휴머니즘, 진보, 합리성과 같은 거대담론(Meta-narratives)에 대한 도전으로 그 인식에 있어 보편적 진리를 불신하며

이원론적 사고(진위, 선악, 미추)의 폐기를 주장한다(Milroy. 1991).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뚜렷한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Jameson(1984)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개인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세계적, 문화적 힘으로 규정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자본주의의 후기 단계 또는 후기자본주의의 새로운 축적양식으로서의 문화지배를 의미한다(Jameson. 1984; Harvey. 1989; 만델. 1985). 사회경제적으로는 탈산업사회의 부상과 정보화의 진척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지탱하는 물질 토대가 된다(Beaugard. 1989; Duncan. 1996; Allmendinger. 2002b).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 상품의 생산으로부터 소비까지의 주기를 단축시키는 기제로서의 대중문화와 상업광고의 홍수는 포스트모던 한 현실을 지탱하는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다. 국가기능의 변화도 포스트모더니즘의 보편화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1970년대 이전까지의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주는 유모국가(Nanny State)였다면 현대의 국가는 방관자적인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Harvey. 1989). 역사발전의 체현으로 자부되던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역시 심각한 지적 자극이라 할 수 있는데, 체제 자체의 소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산주의 국가가 남긴 절망적인 유산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수의 좌파 지식인들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향하였다⁴⁾(Allmendinger. 2002b).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4) 제임슨, 디어(Dear), 소자(Soja) 등은 그 대표적인 논객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열심히 진보적 거대담론을 갖다 붙임으로써 스스로가 포스트모더니스트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Duncan. 1996).

없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신념의 자리를 유행이 대신하고 있고, 이성적 사고는 감각에 의해 대체된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묻는다. 진보는 무엇이고, 변화를 위한 노력은 왜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힐리. 2003). 역사발전이나 사회진보와 같은 거대담론에 매달리기보다 미시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무차별적 해체(Deconstruction)가 찬미된다(Allmendinger. 2002b). 주류가 아닌 타자(Others)에 대한 강조가 여성, 동성애자, 자연환경의 권리에 대한 강조로 구체화됨으로써 포스트모던 사회이론은 페미니즘과 급진적 생태주의, 게이정치이론(Gay Politics)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허무주의(Nihilism), 상대주의, 개인주의, ‘지금 여기의 강조(Here and Now)’와 ‘무엇이든 상관없다(Anything-goes)’는 태도가 문화 및 사회이론 전반에서 힘을 얻고 있다(Oranje. 2002).

인식론적 상대주의는 종종 반근원주의(Antifoundationalism)로 흐르는데, 이는 어떠한 진리나 기준도 거부하는 무차별적 상대주의를 의미한다. 반근원주의에서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ayer. 1992). 이러한 반근원주의적 인식에서는 나치즘과 같은 절대 악에 대한 반대조차도 배타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Duncan. 1996). 허버마스과 하비는 이러한 반근원주의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을 진보적 정치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Harvey. 1989).

Dear(1995)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으로서 단일한(Unitary) 설명에 의해 주장되는 모든 권위는 저항되어야 하며 모든 담론의 상대적 이점은 비결정적이므로 지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지적한다. 하지만 Taylor(1998)는 이러한 주장이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음을 갈파하는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든 담론의 상대적 이점이 비결정적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Giddens(1990)는 어떤 사람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적인 활동을 멈추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Allmendinger(2002b)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을 따르는 것은 비결정성의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Taylor(1998)는 포스트모던 사회이론이 자기패배적인 허무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에 퇴행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Eagleton. 1996; Oranje. 2002). 포스트모더니즘은 소수자의 권리에 주목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확장시켰다.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를 부각시켰으며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학문에 있어 중요한 인식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Duncan(1996)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전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제안과 정치적 지위는 의문시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며, 궁극적으로 해체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없었다면 은폐되었을 문제들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Harvey. 2000). 결국 화석화되고 관료화된 관행과 지식들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인식 속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혹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혁명적 잠재력으로 충일해 있던 근대주의의 원정신으로의 회귀로 평가하기도 한다

(Lyotard, 1984). Oranje(2002)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정신으로서의 이성인 모든 전근대의(Premodern) 유령들을 죽이지 못했음을 근대성에게 일깨움으로써 건강한 근대성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채용하는 해체와 전복은 그 비판적 에너지의 표현 방식이며(Duncan, 1996), 차이에 대한 강조는 계몽주의 프로젝트가 중시했던 개별화 추구의 최종적 발전양태로 이해된다(Giddens, 1990).

III. 포스트모더니즘과 계획이론

1. 근대계획에 대한 포스트모던 조류 이전의 문제의식

계획이론에 포스트모더니즘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 이전에도 근대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종합적 계획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또한 르 꼬르뷔제 등에 의해 시도된 이상도시(Utopia)나 조닝(Zoning)⁵⁾과 같은 모더니즘적 도시계획에 대한 공격이 합리적·종합적 계획에 대한 비판과 짝을 이루어 전개되어 왔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Beauregard, 1989; Harvey, 1989; Taylor, 1998; Oranje, 2002).

포스트모더니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근대계획에 가해진 가장 유력한 도전은 Jacobs(1961)의 저술이다. Harvey(1989: 71)

는 제이콥스의 비판을 “가장 이른, 가장 명백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반근대주의의 표현”으로 평가한다. 제이콥스는 근대 도시계획과 조닝이 미국 도시들의 다양성을 제거했으며 그로 인해 활력 없고 단조로운 도시들로 미국 전체가 채워졌다고 비판한다. 제이콥스 자신은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지만 이는 표준화와 단순화에 의한 효율성의 추구라는 근대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다(Harvey, 1989). 제이콥스는 대안으로서 재개발사업의 회피와 혼합용도의 토지이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Taylor(1998)는 제이콥스가 제기한 비판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혼합용도의 선호가 아니라 합리적 계획에 의해 도시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주장한다. 제이콥스의 주장은 이후 등장한 뉴어버니즘(New Urbanism)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Oranje, 2002).

근대계획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은 Lindblom(1959), Davidoff(1965), Etzioni(1967)로 이어지는 일련의 합리적·종합적 계획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다. 이들은 합리적·종합적 계획이 지닌 불가치적이고 이상론적인 한계에 주목하면서 계획과정과 의사결정에 있어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린드블롬은 점진주의(Incrementalism)를 제기하였으며 에치오니는 혼합주사방법(Mixed Scanning)을 제시하였다. 데비도프는 합리적·종합적 계획의 일원론적 공익 가정이 소외계층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원론적 옹호계획(Advocay Planning)을 주창하였다. 두 번째 도전의 한계는 합리적·종합

5) 조닝이야말로 근대정신의 체현이라 할 만하다. 조닝은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주도로 20세기 초반 미국을 풍미했던 과학적 관리운동(Scientific Management Movement)의 소산이다(Cullingworth, 1997). 후버의 기본적인 인식은 표준화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시장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관리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학적 관리론’을 주창한 테일러리즘(Taylorism)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적 계획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제기들이 합리적·종합적 계획을 대체할 만큼 확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찾아진다(Harper and Stein, 1996). 즉, 점진주의는 계획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현실 추수적이며 혼합주사 방법은 단순한 절충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옹호계획 역시 대안적인 계획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단순한 계획의 지침이나 윤리사항으로 왜소화되었다.

세 번째 도전의 시기인 1970년대는 급진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시대였다. Friedmann(1973)은 계획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교호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마르크스주의자들인 Harvey(1973)와 Castells(1979)의 저술은 공간 계획계에 신선한 충격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구체적인 대안적 계획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계획에 대한 비판이론은 될 수 있지만 계획이론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포스트모던 사회이론과 문화이론이 계획이론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2. 현대 계획이론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1) 포스트모던 건축이론의 문제제기

포스트모던 이론이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포스트모던 건축이론적인 시각에서의 근대주의적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이 이미 1970년대부터 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Harvey, 1989). 1973년 리(Lee)는 ‘대규모 계획모델을 위한 장송곡’이라는 글을 통해 1960년대의 대규모, 통합적 계획모

델의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1976년 뉴욕 타임즈는 제이콥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군의 급진적 계획가들이 1960년대에 이루어진 근대주의적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근대주의 도시계획가들이 도시를 자기완결성을 갖는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본 반면, 문제 제기자들은 도시를 혼란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과정으로 이해하였다(Ellin, 1996). 제이콥스에 의해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은 조닝에 기초한 대규모 마스터플랜보다 이질적 공간 혼합물의 콜라주(Collage)로서 도시개발을 지지하였는데, 콜라주 도시는 사악한(Vilified) 도시재개발⁶⁾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었다(Harvey, 1989). 생태주의적 시각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지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이다. 포스트모던적인 시각에서 근대 도시계획이 만든 대규모 슈퍼블럭에 의한 기능 분리는 근대주의의 반생태적 속성을 보여주는 특징으로 평가된다(Krier, 1987). 구체적으로 존 간의 원거리 이동이 야기하는 시간과 에너지, 토지자원의 낭비는 근대 도시계획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은 1972년 세인트 루이스(St. Louis) 소재 프룻이고(Pruitt-Igoe) 아파트의 폭파일 것이다. Jencks(1984)는 프룻이고의 파괴를 근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으로 표현한 바 있다. 프룻이고는 모더니즘 건축 및 도시계획의 모범으로 미국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모더니즘 건축의 중요한 성취로 평가받던 프룻이고 고층 아파트는 시간이 흐르면서 슬럼화되어 세인트 루이스의 자랑에서 세인트 루이스의 수치로 변하였고, 결국 다이너마이트에 의한 폭파라는 비

6) Beauregard(1989)는 도시재개발 사업을 마스터플랜 전통의 산물로 평가한다.

극을 겪게 된다. 프룻이코의 파괴는 종종 낙관적 미래의 핵심으로서의 인간 이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근대주의자들의 신념의 근본적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Taylor, 1998). 하지만 이러한 건축적 논쟁은 포스트모던 논쟁의 서곡에 불과하다. 도시계획에 관한 논의는 개별단지를 넘어서는 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포스트모던 계획이론은 존재할 수 있는가?

근대주의의 합리성에 대한 거부인 포스트모더니즘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정형화되어온 여러 가지 가치와 규범적 원칙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Taylor, 1998). 그것은 주로 단일한 공익의 가정에 대한 비판과 다양성 및 차이, 다원성의 강조를 통해 확인된다(Beauregard, 1989).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 하워드(Howard)의 전원도시는 도시계획가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라기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약하는 억압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숨 막히는 거대도시가 전원도시보다 나쁠 것이 무엇이나고 되묻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당연시되어온 여러 가치들을 전복하고 해체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제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근대적 계획접근을 맹신하는 것보다 더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제기되는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은 본질적으로 처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Allmendinger, 2001). 원론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결코 건설적인(Positive) 프로젝트가 아니다(Duncan, 1996).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모든 권위와 존재를 해체하고 파괴하기를 원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전망에서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없는 논제이므로 포스트모던 계획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비교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책집행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계획과정이지만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각 안에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며, 더 낮고 더 못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고, 정책집행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결국 모든 정책행동은 유보되고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기구가 그것을 대신하게 된다. 린드블럼의 무행동주의(Inactivism, Muddling-through)가 그 완곡한 형태라면, 그 과격한 형태는 신자유주의의 시장권능에 대한 맹신일 것이다.

Beauregard(1989)는 근대계획의 위기로서 계획의 자본으로부터의 중립성의 약화와 그로 인한 개혁적 경향의 손상을 지적한다. 그는 포스트모던 접근이 그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본말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 할 수 있다. 계획의 중립성과 개혁동력의 약화는 근대주의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도적인 포스트모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듯 일부 포스트모던 이론가들⁷⁾이 대안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을 주창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아니다(Jencks, 1986). 그들이 언급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사실상 모더니즘이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후기 모더니즘(Late Modernism)이다(Jameson, 1984; Harvey, 1989). 그들의 그러한 대안 제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극복하려 했던 또

7) 제임슨, 포스터(Foster), 료파르(Lyotard), 하산(Hassan)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른 규범과 거대담론, 이원론적(Binary) 가치판단과 근원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안 없는 전복일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적 접근은 일부 건설적인 자양분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례로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담론, 그들의 언어가 외부인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교불가능성의 주장은 외부자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화는 공허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개선을 위한 모든 행동의 포기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권력과 억압이 합리적 대화를 대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Rorty. 1991; Harper and Stein. 1996).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의 계획에 대한 관심은 크다고 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계획을 강요된 합의나 기존 권력관계를 고착시키는 활동 정도로 이해한다(Allmendinger. 2002b). 결국 포스트모던 사고는 최악의 경우 계획을 배제하고 잘해봐야 계획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이론일 뿐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Allmendinger. 2001).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포스트모던적인 사고를 ‘포스트모던 계획’으로 연결시키려 할 때 발생한다. 단일한 이해관계의 가정을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각에서 특수 이익에 대한 조정적인 역할을 계획이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개진되지만(Beauregard. 1989; Sandercock. 1998), 비교불가능성과 반근원주의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 틀 속에서 견해 간의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합의나 조정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보다는 오히려 근대주

의적 문제해결 방식에 가까운 접근이다(Harper and Stein. 1996). Lyotard(1984)는 합의를 ‘강요된 테러’로 규정한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전망 안에서 모든 종류의 합의는 억압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된다(Allmendinger. 2002b).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힐리. 2003). 궁극적으로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을 신봉한다면 계획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 포스트모더니즘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은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계획이 아닌 근대계획이라는 현상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Allmendinger. 2002b).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만 유효하다는 증거는 조닝과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단조로운 경관을 비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행보를 통해 확인된다. 공간설계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노골적으로 시장 지향적이다(Fainstein. 2005).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경직성과 통제성, 획일성과 단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의 ‘보이는 손’은 사라져야 할 악덕이다. 그런데, 그 사라진 공간을 채우는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균형 잃은 시장의 힘은 좀처럼 제이콥스가 주장했던 결과를 낳지 않는다(Harvey. 1989). 이는 지불능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닝이 계획가의 조닝을 대체함으로써 지대(Rent)의 원칙에 기초한 토지배분을 이루기 때문이다(김홍순. 2005). 결국 계획으로부터 시장기구로의 이동은 단기적으로는 용도의 혼합을 이끌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조로움으로 귀착되고 만

다. 이는 포스트모던한 접근으로 이해되는 도시재생(Gentrification) 사업이 모더니즘과 다름없이 단조로운 경관을 창출한 것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다(Harvey, 1989). Jencks(1984)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을 인정하면서도 “건축가는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애써 책임을 회피한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이 제안하는 대안들을 채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이 채용할 수 있는 전략은 오히려 근대주의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제안은 근대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포스트모던 접근을 계획에 적극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합리성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하는 것에서 찾아져야 한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나 비판적 합리성의 채용은 그 대안이 될 것이다.

3) 계획이론에서 포스트모던적 문제제기의 유용성

근대적 합리성의 재건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제기를 근대주의적 인식의 기초 위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혹자는 이것을 탈근대주의(POSTmodernISM)를 넘어선 후기 근대주의적(postMODERNism) 접근으로 평가하기도 한다(Harvey, 1989). 명칭의 유희적 느낌과 무관하게 이는 계획의 위기, 더 나아가서 합리성의 위기를 돌파하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술된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용성은 합리성이라는 자기

만족적 확신을 제어한다는 차원에서 찾아질 수 있다(Allmendinger, 2002b). 통제되지 않는 자기 확신이 전체주의와 같은 이성의 마비로 발현되었던 것처럼, 모든 답론은 견제가 없을 때 균형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은 합리적·종합적 계획이나 유토피아 지향적 광신에 대한 일정한 문제제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Taylor, 1998). 근대계획이 신봉해온 몰역사적 단일계획(Unitary Plan)과 갈등 없는 공익의 가정을 전복시킨다는 점 또한 중요한 의의라 할 것이다(Beauregard, 1989). 앞에서 언급한 파괴적 재개발 프로젝트, 기능적 시각에 매몰된 zoning, 기존 도시구조와 조건의 무시, 역사성의 경시 등은 근대주의 계획이 남긴 대표적 폐해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제기에 의해 자기 교정이 가능한 부분들이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강조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이 근대계획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제기다(소자, 1997). 근대계획은 탈공간적이며 탈시간적이다(Beauregard, 1989).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추구하는 근대주의는 개별 공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모든 곳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구의 계획방법이 개발도상국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대상에 상관없는 표준화된 설계방법이 찬양된다. 라공(1982)이 지적한 것처럼 그 결과는 ‘폐허화’된 일련의 현대 도시들이다. 브라질리아와 찬디갈(Chandigarh), 프룻이고는 모더니즘이 남긴 참담한 ‘폐허’들이다. 같은 맥락에서 근대주의는 시간을 단순한 선적(線的)인 연장으로 이해함으로써 역사적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근대

주의의 물역사적 시간이해는 과거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미래를 상정한다. 근대주의의 보편적 계획방법론에 대한 믿음은 이러한 시간의 동질성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례로서 외삽적(Extrapolation) 인구추계라는 방법을 통해 표출되는데, 추계된 인구에 원단위를 곱해서 기계적으로 도시시설을 공급함으로써 만성적인 시설과잉과 시설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시간과 공간을 사회역사적으로 이해한다. Lyotard(1984)는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순차적인 선적 흐름이 아닌 특정 국면의 특정한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접근에서 외삽적인 미래예측은 이루어지지 않고 맥락(Context)과 사례의 특수성이 강조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또 다른 기여는 지방성(Locality)의 재발견이다(Beauregard, 1989; Cooke, 1990; Allmendinger, 2001). 근대주의가 거대담론으로서 민족과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국민국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자양분을 제공했다면 개체와 미시적 관점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방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방성의 강조는 푸코(Foucault)와 료파르의 미시정치에 대한 강조에서 기원한다(Duncan, 1996). 1980년대 이후 국가계획의 퇴조, 지방분권의 강조,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은 이러한 사회담론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지방에 대한 계획'인 도시계획은 '지방화 시대'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조류 속에서 그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포스트모던 조류 속에서 도시경영과 계획에 있어 지방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강조하는 건축에서의 지역주

의(Regionalism)의 부상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Cooke, 1990).

포스트모더니즘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강조는 계획에 대한 개방성과 민주적인 과정의 강조로 이해할 수 있다(Allmendinger, 2002b).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배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해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정책대상 집단을 계획과정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북미의 계획 관련학과 교수들은 새로운 시대에 인종, 민족, 성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슈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계획 속에 반영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계획기술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Thomas, 1996). 하지만 현 단계에서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정도가 서구에 비해 떨어지는 우리의 경우에는 성이나 인종적 측면보다 계획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에 보다 큰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계획은 더 이상 기술적 합리성의 가면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의 '정치과정'임을 인정할(Coming-out) 필요가 있다. Flyvbjerg(1998)는 덴마크의 한 도시에서 이루어진 현실계획을 통해 계획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또한 계몽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이지도 않음을 보여준다. 그에게 있어 계획의 교리는 마르크스주의보다는 마키아벨리와 니체주의 주장에 가깝다. 현실 계획은 정보의 차별적 선택과 왜곡, 참여의 양과 범위의 제한, 정치적 거래, 특수이익의 영향, 정치권력의 결정에 대한 사후 합리화 등의 결과물이다. Cullingworth(1997)는 미국에서 조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개발업자와 시당국 간의 게임을 잘 묘사한다. 시당국은 거래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개발업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고 개발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개발업자로부터 필요한 기반시설과 어메니티 요소를 얻어낸다. 개발업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내기 위해 어메니티 요소의 추가 공급을 수인하지만 개수만 채우고 질적으로는 형편없는 시설을 공급함으로써 채산성을 맞추고자 한다. 개발업자와 시당국은 서로 속고 속이는 게임을 진행한다. 때로는 법정에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서로의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이면거래 또한 마다하지 않는다.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계획은 조금은 다른 형태의 정치과정으로 진행된다. 원론적으로 계획은 계획가들이 그 일부를 이루는 이해관계 및 권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Allmendinger, 2002b). 한국의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서 관은 계획결과를 되도록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주민공람이나 공청회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기회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일쑤다. 대신에 한국에서의 계획정치는 주로 지주와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로비대상은 지방의원, 도시계획 당국자, 도시계획위원 등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계획정치는 한정된 이들 간의 게임으로 제한되고 취약한 민주성이라는 문제점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일방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며 부패의 개연성을 많이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계획을 더 이상 기술이 아닌 정치로 재규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도시계획은 계획의 결과를 기술적(공학적) 분석의 결과로 가정함으로써 일부 계층에게 전가되는 비용부담을 합리화해 왔다. 피해계층 역시 일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이러한 차원

에서 계획의 결과를 수용해 왔다. 하지만 계획이 정치과정임이 공식화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비용 부담을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보다 공평한 비용과 편익의 배분을 요구할 것이다. 요구의 수용은 정치과정으로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이 더 이상 기술적 합리성만의 결과가 아님을 고백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흔히 주민들의 주장은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당하기도 하지만 지역정책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시정시키며 밀실행정에 의한 소수의 게임을 다자간의 게임으로 확산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박중화 외, 2004). 따라서 주민들은 이미 계획과정이 정치적 과정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획은 시대의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모던 한 사회적 조류의 영향으로 민주성이 강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대안적 계획이론의 모색

본고는 앞서 포스트모던 계획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대임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의식이 기존의 계획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한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역시 계획의 변신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제기하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지 않고 그 긍정적 자양분을 수취하여 계획이론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근

대주의가 꿈꾸어 왔던 이상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계획에 대하여 대략 아홉 가지의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상호배타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다. Beauregard(1989)는 현대의 계획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이에 걸쳐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 연구는 그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계획은 분명히 근대가 이루어 놓은 성과 중에서도 가장 근대적인 것으로서 근대성 자체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프로젝트다(Oranje, 2002). 따라서 이후에 제시되는 비전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제기하는 비판을 근대주의적 시각에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또한 근대주의적 인식의 연장에 있으면서도 포스트모던 계획을 주장하는 소자(1997)나 Sandercock(1998)의 주장과도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특성상 포스트모던 계획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각은 근대주의의 입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긍정적인 측면을 활용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거세함으로써 진정한 근대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Oranje(2002)의 전망을 수용한 것이다.

첫 번째 전망은 '정의로운 도시'다(Harvey, 1993). 정의로운 도시는 우선 공정한 비용과 편익의 분배가 전제되는 도시다. 특정인의 희생 위에 특정인이 이익을 보는 도시는 정의로운 도시가 아니다. 하지만 공공이 나서서 선형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은 편익과 비용의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작업으로 그 역할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정의로운 도시는 도시의 모든 주민들

이 제한 없이 정보를 수취하고, 계획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여과 없이 표출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의에 관한 기존의 관념은 주로 경제적 정의 개념으로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기존의 정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개념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다(Sandercock, 1998). 이는 다양성과 차이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의 필요에 보다 민감한 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새로운 계획은 이들 소수자들이 자기표현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Harvey, 1993).

두 번째 전망은 '다양한 도시'다(Sandercock, 1998). 새로운 계획은 근대주의적 계획의 단일한 공익의 개념을 거부함으로써 다양성과 다원성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Allmendinger(2002b)는 이질적 공익(Heterogeneous Public Interest)의 개념을 소개한다. 이질적 공익은 정의로운 도시의 연장에서 소수자의 이익과 숨겨진 목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인식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다양한 도시'는 또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할 거리를 갖는 '재미있는 도시'이고, 생활에 활기와 풍요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도시'다. 뉴어버니즘은 그 구체적인 실현전략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 전망은 '차이의 도시'다(Sandercock, 1998). 여기서 차이는 서로를 배제하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포용하는 의미로서의 차이이다. 이는 근대주의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보편성 개념의 거부를 의미한다. Harvey(1993)가 지적한 것처럼 불평등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보다 더 불평등한 것

은 없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근대 정신의 핵인 평등과 진보는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Young(1990)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정의는 차이를 녹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억압 없이 집단 간의 차이를 재생산하고 존중하도록 추진하는 기제라고 설명한다. 차이의 개념은 어떻게 도시계획 안에 수용될 수 있을까? 지방이 갖는 특수성의 존중과 계획고권의 온전한 인정은 그 중요한 실현방식이 된다. 따라서 법은 대강의 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와 계획을 통해 담아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지역은 서로 다른 모습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고 서로의 고유한 강점을 살려나가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Allmendinger. 2001).

네 번째 전망은 '민주적 도시'다(Beauregard. 1989). 민주적 도시는 앞서 언급한 정의로운 도시이며 차이가 인정되는 도시다. 또한 이를 통해 다원성이 실현되는 도시이기도 하다. 민주적 도시에서는 모든 주민이 주인이다. 계획관료의 독단에 의해 전횡되는 계획은 있을 수 없다. 민주적 도시에서 모든 계획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모든 주민들의 이익표출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적 도시는 주민들이 도시계획 결정에 참여하는 길을 투명하게 열어 놓음으로써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킨다(Allmendinger. 2001).

다섯 번째 전망은 '정보도시'로서 정보화를 통해 민주적 도시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도시다(Mitchell. 1995).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을 촉발시켰던 정보화는 계획담론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도시에서 사이버공간은 하

버마스가 언급한 의사소통의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계획당국은 사이버공간을 통해 주민들이 계획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은 웹 GIS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계획 작성에 직접 참여하도록 이끌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은 사이버폴(Cyber Poll)과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개발업자와 시민단체 역시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개진할 수 있다. 정보도시는 모든 민원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되고 그 인허가의 진행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확인되는 도시다(행정자치부. 2005).

여섯 번째 도시는 '환경친화적 도시'다⁸⁾. 환경친화적 도시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기반한다. 현 세대의 이익만을 고려해서 모든 자원을 남용하지 않고 현재의 환경 수준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도시다. 환경친화적 도시는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할 수 없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긍정적 영향을 수용한 도시다. 정보도시는 자원의 직접적인 이동을 감소시키고 관리를 효율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도시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전망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도시'다(소자. 1997). 개방적이고 유연한 도시는 계획안에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는 도시로서, 고정된 시각과 편견에 매달리지 않고 항상 더 나은 계획안이 제시될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를 수용할 자세를 견지하는 도시다⁹⁾. 개방적이고 유연한 도시에서의 계획은 제시되는 모든 계획안에 의문

8) 인간중심적 전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도시'가 아닌 '환경친화적 도시'다.

을 제기한다. 비용과 편익의 분담은 정의로운가? 소수자의 권리는 보호되는가?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은 없는가가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정통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다른 점은 비판적 문제제기가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여덟 번째 전망은 ‘분산된 도시’다. 산업화시대에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가 가장 큰 경제적 효과였지만, 신경제의 등장으로 집중은 점차 그 이점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네트워크화 된 도시연합의 출현이 요구된다(Batten, 1995). 도시연합은 중소도시들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보완적 상생을 의미한다. 이는 서울과 같은 수위도시의 단핵체제를 다핵화된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분산이 시가지의 확산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분산은 권한과 자족성의 분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홉 번째는 ‘시장과 동행하는 도시’다. 결국 도시를 만드는 힘은 자본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개발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계획은 자본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본투자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현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하지만 계획가는 자본의 탐욕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계획은 쾌적한 환경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임을 자본에게 설득하여야 한다. 민주적 계획 과정이 궁극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접근임을 설득

하여야 한다. 다양성과 차이를 갖는 도시가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유리한 접근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물론 시장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지만 무조건 배제할 이유도 전혀 없다. 채찍과 당근, 회유와 위협을 병행함으로써 전술한 비전들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지배적인 조류 속에서도 포용적 조닝(Inclusionary Zoning)이나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Smart Growth와 같은 성취를 이루어낸 미국 계획가들의 노력은 좋은 역할모델이다(Cullingworth, 1997).

V. 결론

본질적으로 근대주의의 문제점은 그 인식의 기저에 있다기보다 그 추진방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인간해방을 향한 근대주의의 추구는 도구적 합리성을 옹호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근대주의의 과학적 추구하고 효율적 관리기구로서의 관료제를 합리화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추구는 인간해방이라는 근원적 목표의 효율적 달성에도 기여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달리 인간에 대한 억압으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그러한 수단선택에서 야기된 문제를 인간해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연결시킨다.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 없이 이상과괴라는 미명하에 모든 가치와 규범을 전복하고 해체하고자 한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계획이론은 존재할 수 없는 상상의 산물이다. 계획이론은 단순한 사회이론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노선의 제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계획이론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9) 이는 린드블럼이 점진주의 전략을 통해 이미 제시한 방안이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저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의식은 근대주의의 원정신, 즉 인간해방을 위한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존 계획이론으로의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시각의 수용은 정의로운 도시, 다양한 도시, 차이의 도시, 민주적 도시, 정보 도시, 환경친화적 도시, 개방적이고 유연한 도시, 분산된 도시, 시장과 동행하는 도시 등 아홉 가지로 표현된다. 이들 아홉 가지 전망은 결국 ‘관용’과 ‘참여’로 집약되는데,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상호보완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김홍순. 2005. "뉴라이트 계획은 가능한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4).
 라공, 미셀, 주종원 역. 1982. 현대의 도시=페허. 삼성미술문화재단 로제나우, 폴린, 안승국 역. 1998. 현대 사회과학의 이해. 인간사랑.
 만델, 에르네스트, 이범구 역. 1985. 후기자본주의. 한마당.
 박종화·윤대식·이종열. 2004. 지역개발론. 박영사.
 소자, 에드워드, 이무용 외 역. 1997.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시각과 언어.
 안태환. 2004. "포스트모던의 계획에의 적용논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1).
 장욱. 1996. "비판이론과 후기구조주의 그리고 계획이론". 국토계획 31(6).
 정환용. 2001. 계획이론. 박영사.
 포퍼, 칼, 이한구 역. 1998. 열린사회와 그 적들 2권. 민음사.
 행정자치부. 2005. 지방행정혁신 표준 매뉴얼.
 힐리, 팻치, 권원용·서순탁 역. 2003. 협력적 계획. 한울.
 Allmendinger, P. 2001. *Planning in Postmodern Times*. London : Routledge.

Allmendinger, P. 2002a. *The Post-Positivist Landscape of Planning Theory, Planning Futures*. ed. P. Allmendinger and M. Tewdwr-Jones. London : Routledge : pp3-17.
 Allmendinger, P. 2002b. *Planning Theory* (London : Palgrave).
 Batten, D. 1995. "Network cities". *Urban Studies*. 32(2) : pp313-27.
 Bauman, Z. 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Oxford : Polity Press).
 Beauregard, R. 1989. "Between modernity and Postmodern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7 : pp381-395.
 Beauregard, R. 1996. *Advocating preeminence, Explorations in Planning Theory*. ed. S. Mandelbaum et al. New Brunswick : The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 pp105-110.
 Castells, M. 1979. *The Urban Question*. London : Edward Arnold.
 Cooke, P. 1990. *Back to the Future*. London : Unwin Hyman.
 Cullingworth, B. 1997. *Planning in the USA*. London : Routledge.
 Davidoff, P. 1965. "Advocacy and pluralism in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1 : pp331-338.
 Dear, M. 1988. "The Postmodern Challeng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3 : pp262-274.
 Dear, M. 1995. *Prolegomena to a Postmodern Urbanism*. ed. P. Healy et al. *Managing Cities*. Chichester : John Wiley.
 Duncan, N. 1996. *Postmodernism in Human Geography*. *Human Geography*. ed. C. Earle et al. Lanham, MD :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 pp429-458.
 Eagleton, T. 1996. *The Illusions of Postmodernism*. Cambridge : Blackwell.
 Ellin, N. 1996. *Postmodern Urbanism*. Cambridge : Blackwell Publishers.
 Etzioni, A. 1967. "Mixed-scanning : a 'third' approach to decision-mak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ecember : pp385-392.
 Fainstein, S. 2000. "New Directions in Planning Theory". *Urban Affairs Review* 35(4) : pp451-478.
 Fainstein, S. 2005. *Femism and Planning, Gender and Planning*. ed. S. Fainstein and L. Servon. New Brunswick : Rutgers University Press : pp120-138.

- Flyvbjerg, B. 1998. *Rationality and Power*.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 Foster, H. 1983. *Postmodernism. The Anti-Aesthetic*. ed. H. Foster. Seattle : Bay Press : ppiv-xvi.
- Friedmann, J. 1973. *Retracking America*. New York : Double Day.
- Friedmann, J. 1989. "The Dialectic of Reas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3(2) : pp217-236.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Oxford : Polity Press.
- Harper, T. and S. Stein. 1996. *Postmodernist Planning Theory, Explorations in Planning Theory*. ed. S. Mandelbaum et al. New Brunswick : The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London : Edward Arnold.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 Basil Blackwell.
- Harvey, D. 1993. "Social justice, Postmodernism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 : pp588-601.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 Vintage.
- Jameson. 1984.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New Left Review* 146 : pp53-92.
- Jameson. 1988. *Cognitive mapping,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 C. Nelson and L. Grossberg.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Jencks, C. 1984.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London : Academy Editions.
- Jencks, C. 1986. *What Is Postmodernism?* New York : St. Martin's Press.
- Krier, L. 1987. "Tradition-Modernity-Modernism". *Architectural Design Profile* 65.
- Lindblom, C.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 : pp79-88.
- Lyotard, J.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ilroy, B. 1991. "Taking Stock of Planning, Space And Gender".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6 : pp3-15.
- Mitchell, W. 1995. *City of Bits*. Cambridge : MIT Press.
- Oranje, M. 2002. *Planning and the Postmodern Turn. Planning Futures*. ed. P. Allmendinger and M. Tewdwr-Jones(London : Routledge) : pp172-186.
- Rorty, R. 1991. *Objectivism, Relativism and Truth*. vol 1.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ercock, L. 1998. *Towards Cosmopolis*. Chichester : John Wiley.
- Sayer, A. 1992. *Postmodernist Thought in Geography : A Realist View*. In Habermas and Modernity. ed. R. Bernstein. Cambridge : MIT Press : pp161-176.
- Taylor, N. 1998. *Urban Planning Theory Since 1945*. London : SAGE Publications.
- Thomas, J. 1996. "Educating Planner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5 : pp171-182.
- Young, I.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 논문 접수일: 2006. 5. 26
 - 심사 시작일: 2006. 6. 1
 - 심사 완료일: 2006. 8. 1



ABSTRACTS

**The Challenge of Postmodernism and
an Inquiry of Alternative Planning Theory**

Heung-Soon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Urban Planning, Hanyang University

※ Key words : Modernism, Postmodernism, Postmodernist Planning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ostmodernist planning’ can exist in actuality although much literature insists on the existence and the necessity. This study discusses the general concept and meaning of postmodernism in order to discuss the meaning of ‘postmodernist planning’. Based on the discuss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ostmodernist planning’ can exist. This study finds out that the concept of postmodernist planning is simply fabricated logically and practically. Nevertheless, this study suggests that contemporary planning should adopt some sound aspects of the postmodern approach. What to follow is the visions to be adopted from postmodernism: justice, diversity, difference, democracy, information, environment, openness and flexibility, decentralization and market.